

열린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School Library for Open Education

한 윤 옥(Yoon-Ok Han)*

목 차

- | | |
|--------------------------------|--------------------------------------|
| 1. 서론 | 4. 열린교육의 교수-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봉사 |
| 2. 열린교육의 의의 | 4. 1 열린교육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 |
| 2. 1 열린교육의 개념과 발전 | 4. 2 열린교육의 교수-학습방법 사례 |
| 2. 2 우리나라에서의 열린교육 | 4. 3 열린교육의 교수-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협동교수프로그램 |
| 3. 열린교육의 교수-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공간구성 | 5. 결론 |
| 3. 1 학교도서관의 공간구조 원리 | |
| 3. 2 학교도서관의 공간구조 사례 | |

초 록

교육개혁의 하나로 열린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은 열린교육의 교수-학습 과정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이 연구는 열린교육에서의 교수-학습과정을 위한 도서관의 능률적인 봉사를 위하여 도서관의 공간을 구성하는 원리와 교사의 교수-학습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협동교수프로그램의 절차를 사례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사서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ABSTRACT

Nowadays a lot of schools carry out open education and the school libraries have to seek the ways how they can participate efficiently in the instructional design process in the system of open education. For these purposes, a spatial relationship of school library and the process of cooperative program planning and teaching is investigated with a case study. Cooperative program planning and teaching is a school library service program which has to be developed as an instructional program related to classroom teaching. However the tendency is that teacher-librarians are not active to do it in the open education system.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접수일자 1998년 5월 16일

1. 서론

세계 각국은 21세기 본격적인 정보사회를 대비하고, 국제화 및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개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추세에서 예외일 수는 없어 1995년 5월 31일에 1차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혁안에서는 정보화 세계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교육의 병폐로 꼽히고 있는 입시경쟁의 과다 및 이에 따른 교육기회의 제한을 철폐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대안으로 열린교육 체제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내세우고 있다(교육개혁평가연구회, 1997, 3-33).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열린교육 체제가 유능한 교사보다는 그것의 실천에 필요한 환경구성이나 시설, 자료 등을 더욱 필요로 하는 체제라고 하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연령의 학생들이 교실의 고정된 의자에 앉아 칠판을 바라보며 교사의 설명을 듣기만 하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체제에서는 가르치는 교사가 설명자이고 주입자이고 통제관이며 판단자가 되어 수업을 이끌기 때문에 설령 자료나 시설이 부족하고 빈약하다고 해도 훌륭한 교사가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있지만 열린교육 체제에서는 그렇지 않다. 열린교육 체제에서는 학습자가 의문을 풀기 위해 스스로 추구하고 무한한 지식을 탐구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은 다만 학습 안내자요 상담자이며 촉진자이고 조력자가 될 뿐이고(성용구, 1994, 27)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교사보

다는 오히려 풍부한 교수-학습자료가 된다.

그렇다면 열린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자료는 어디에서 준비하고 구할 수 있을까? 학교 도서관이다. 그리고 학교도서관만 있는 것보다 자료전문가인 사서교사가 있는 경우 이것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심지어 열린교육을 실시하는 일선 교사들도 그러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지난 여름 나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한 초등학교 교사와 우연히 열린교육에 대하여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다. 교직생활 30년을 바라보는 중견교사로 현재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주임교사직을 맡고 있는 A선생은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기 시작한 영어교육 때문에 회화 교육을 받으러 다녀야 하는 고충을 털어놓다가 토론과 탐구학습 등 열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이야기 하게 되었다. 나는 열린교육이라는 단어가 화두로 나오자 당연히 학교도서관이 거론될듯 싶어 관심있게 그 부분을 짚어보았는데 A교사의 생각 속에 전혀 학교도서관이 자리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실망하면서 어떻게 열린교육이라는 우리 세대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그녀는 강습이라는 단어로 다음과 같이 간단히 답하였다.

“...열린교육에 관한 강습이 자주 있어.. 거기 가면 열린교육 교재도 많이 있고... 노래도 배우고 또 서로 의견도 주고받을 수 있고...

뒤 그렇게 해서 하는거지”.

아직도 나의 귀에 생생한 대답인데 더욱 답답한 것은 도서관을 들먹이는 나의 말에 대해서 그녀가 그다지 깊이 동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필요성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왜 그녀가 도서관을 필요로 여기지 않았을까? 이 의문은 대략 위의 대답을 통해서 보았을 때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열린교육을 강습하는 곳에서 주는 교재 정도로 국한시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 열린교육의 교재는 그것을 실시하는데 지침이 되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안내 교재¹⁾ 일 뿐이고 그것 자체가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수업내용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강습에서 받는 교재로 수업내용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까지 구해진 것으로 생각하는 일선교사의 사고 방식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에 미친 학교도서관의 영향이 얼마나 미약한 것이었나를 실감

할 수 있다.

사실 열린교육은 학습공간이 열려있다(open space)는 것과 교육과정이 열려있다(integrated curriculum)²⁾는 의미에서 쓰이는 말로서 열린교육이 운영되는 보편적인 형태는 교실이 복도, 운동장, 도서관 등을 향해 열려있고, 실내 도서실과 여러 가지 활동코너나 흥미코너 등이 있어서 아이들이 언제라도 자신의 관심에 따라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조용기, 1994, 4). 또 열린 교육의 수업활동에 흔히 나타나는 학습형태로 주제학습³⁾, 독서활동, 토론학습⁴⁾ 등이 있는데 이러한 활동 역시 도서관이나 자료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활동이다. 그런데 열린교육을 행하는 일선교사가 학교도서관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서관과 교육계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학교도서관이 취해야 할 가장 시급한 행동은 교육계에서 최대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열린교육 체제에

- 1) 열린교육 교사지침서가 있다. 4학년 언어영역 자료중 164쪽에 실린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본만큼 느낌으로'라는 굵은 활자의 제목아래 '내가 요즘 재미있게 본 영화(만화영화)나 동화책의 내용을 소개해 보세요.'라는 활동지시란이 있다. 166쪽에는 '한옥 속에 배어있는 조상의 숨결'이라는 제목아래 '한옥 사진이지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는 양옥, 아파트와 비교해 보며 한옥에 대해 조사해 보세요'라는 활동지시란이 있다. 도서관의 자료를 참고로 찾아보아야 할 활동들이다.
- 2) 여기에서 integrated curriculum이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보는 것과 같은 교과통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일과내용이 시간별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한다. integrated day 혹은 free day라고도 한다.(조용기, 열린교육의 정신. 초등교육연구논총 6집(1994.1) p.6에서)
- 3) 학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운현초등학교의 경우 topic 학습이라고 한다. 과제해결을 일찍 마친 어린이는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연구 조사활동을 택한 어린이는 각기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고 참고도서를 이용하여 조사, 기록해 나간다고 한다. 주제선정은 교과학습과 관련되거나 자신의 환경과 밀접한 것에서 정하게 하고 내용과 관련된 사진과 그림도 수집하여 붙이게 한다.
- 4) 운현초등학교의 경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1시간을 할애하여 토론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는다. 토론주제는 1주일 전에 알려주며 토론자는 윤번제로 참여한다. 주제는 생활주변이나 시사성있는 것에서 설정하여 제시해 준다. 정기적 토론 시간 이외에도 읽기자료를 제공하여 자료를 읽은 후 그 상황에서의 자신의 생각과 처신, 옳고 그름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간혹 갖는다고 한다.(한국열린교육연구회, 한국초등교육학회 편저, 열린교육의 이해 p.274 참고).

서 학교도서관이 어떻게 학습활동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교육관계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곧 거시적으로는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본 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것이고 미시적으로는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은 여기에 있다.

2. 열린교육의 의의

2.1 열린교육의 개념과 발전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행태로부터 탈피하여 학습자들이 보다 허용적이고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의 장을 변모시킴으로써 아동들의 정신적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육행태나 학교의 모습을 실현시켜 보고자 많은 교육학자들이 연구하여 왔다. 그들의 관심은 주로 학습분위기가 좀더 인간적이 될 수 없겠는가 또는 아동들에게 보다 즐겁고 유익한 장소로서의 학습을 구성할 수 없겠는가 하는 질문에서 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 교육에서는 모든 아동들에게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줌으로써 각 아동의 지적, 정서적 발달을 꾀하도록 노력하게 되며, 이와 같은 교육적 관점에서 제시된 교육체제에는 열린학교, 열린학급, 열린교육, 자유학교 및 통합교과수업일 등의 다양한 모습이 있다.

여기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열린교육(open education)은 영국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루소의 에밀에 나타난 교육론에서 그 방법론적인 또는 교육철학적인 시사를 찾아 볼 수 있으며, 그후 이 개념은 존듀이의 진보주의 교육사상이나 교육방법론에 힘입어 더욱 활기를 띠고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된다(박성익, 1994, 11-12).

열린교육은 말 그대로 정해진 한계가 없이 열려있는 것이라 이를 구체화하여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열림'의 의미를 고정화되고 정형화된 양식을 지녔다는 의미의 '닫힘'과 견주어 봄으로서 그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되리라고 본다.

열린교육은 지금껏 '닫혀있음'으로 인해 여러 병폐를 야기한 학교교육의 규정된 양식을 깨뜨림으로써 새로운 교육적 성과를 기대해 보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Nyquist는 열린교육을 교수 접근 방법의 하나로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초등학교 교실의 교구배치나 형식화된 교사-학생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비형식적인, 아동 중심으로 개별화된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적 시도라고 정의했고, Morrison은 개별화를 인정하고 독립심과 자유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존중심을 보이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형적인 초등학교 교실을 재구조화하려는 교육방식이라고 말했다(한국열린교육연구회 편저, 1994, 24).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곡초등학교는 1997년 열린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현재 열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자가 그곳을 방문하고 기록한 기사(조선일보 1998.3.24, 32면)

는 위의 학자들의 정의와 더불어 열린교육의 개념과 실시 방법 및 환경 구성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교실 풍경부터 색다르다. 직사각형 책상에 두명이 앉아 앞뒤로 늘어선 옛모습이 아니다. 둥근 원형책상 5개에 7-8명이 둘러앉아 있다. 교실 우측과 뒷편에는 각종 놀이기구가 가득찬 코너 놀이방이 네군데에 꾸며져 학교교실이란 느낌이 전혀 없다. 교실과 복도사이의 벽을 헐어 교실도 넓혔다. 이 때문에 1반에서 3반까지 자연스럽게 <열려>있다. ‘가위, 바위, 보’ ‘이겼으니까 18에서 19로’ 여자아이 4명이 코너놀이방에서 즐거운 말판놀이를 하며 숫자를 익히는 과정이다. 바로 옆에서는 두명의 남자아이가 길도 모른채 장기판을 갖고 논다. 나머지 학생들은 선생님 지도로 개나리 등 글자 따라쓰기를 하고 있다. 코너놀이방에서 노는 아이들은 글자 따라 쓰기를 이미 마친 아이들. 남은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학습능력에 따라 교육과정을 차별화하는 개별학습의 한 과정이다.....교사가 칠판에 쓰면 학생은 받아 쓰고, 하나의 학습방법을 모든 학생이 일률적으로 따라야 하는 획일적, 경직화된 일제식 학습을 헐어버리자는 것이다. 가령 덧셈을 가르칠 때 수준이 낮은 학생에겐 바둑알 이용하기로, 중간그룹엔 숫자 판 그림으로, 이해가 빠른 아이에겐 학습지를 통해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다..... 수업 전 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게 학습내용과 과제를 야기하는 ‘러그미팅’, 학습목표를 조기에 도달한 학생은 심화학습과 선택학습을 하도록 하고 부족한 학생에겐 개별지도를 통해 보충학습을

해 주는 ‘개별 및 모둠별 학습’ 등은 열린 수업의 핵심흐름도이다. 블록타임제와 팀티칭이란 것도 있다. 1교시는 40분이란 경직성을 깨고 80분을 쥐 시간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팀티칭은 1-3반 3명의 선생님이 팀을 이뤄 한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과 과제를 토론하고 결과에 도달토록 하는 공동작업이다. 사교력 개발 및 창의성 신장을 위한 자료와 기구들도 상당부분 갖췄다. 1학년 이옥규교사는 ‘지난 1년간 열린학습 지도방법과 자료수집을 위해 교사들끼리 많은 연구를 해왔다’며 ‘솔직히 교사는 이전보다 5배이상 힘들지만 아이들은 학교생활이 재미있으며 즐거워한다’ 고 했다.....오문환교장은 ‘학습방법은 연구가 많이 돼 별 문제가 없지만 열린학습에 필요한 교실규모 확대와 다양한 자료구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애를 먹고 있다’ 고 말했다.”

위의 교실풍경에 나타난 것은 바로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열린교육의 특성과 같은 것으로서 아래(한국열린교육연구회 편저, 1994, 21-2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1) 교수-학습 활동에서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 2) 아동은 학습활동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 3) 지식이나 기술들을 선택하며 통합적으로 배운다.
- 4)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간에 서로 가르치고 배우게 한다.
- 5) 교사는 아동들의 개개인 행동에 반응한다.

2. 2 우리나라에서의 열린교육

우리나라에서의 열린교육은 이제 10년 남짓한 역사를 갖고 있다. 1986년에 서울의 영훈과 운현 두 사립초등학교에서 처음 열린교육을 시작하였고, 공립으로는 경기도 안중초등학교에서 1989년에 처음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서울의 윤중, 명지, 계성, 상명초등학교를 비롯하여 경기도 평택의 합정, 수원 의 연무, 부산의 남성, 배정, 흥성, 동래, 대전의 성모, 전남의 여도 등 전국의 30여개 공사립 초등학교들이 열린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처럼 주로 사립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열린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열린교육을 실시하는 곳만 해도 지난해 초등 11개교, 중학 2개교이던 것이 올해 초등 22개교, 중학 14개교로 확대되었다고 하며(조선일보 1998. 3. 24. 32면) 제주도의 대기고등학교는 199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직후부터 학생중심의 열린교육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그것의 실천을 위한 교과별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발표 및 토론 학습방법을 개발하는 등 수업방법의 일대 전환을 꾀한 결과 1997학년도 대학입학수능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하게 되고 졸업생의 96%가 진학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고 한다. 또 이 학교의 사회과 흥성숙교사는 평교사로서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하도록 초청되기도 하여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교원복지신보 1998.4.22. 6면). 서울시 교육청은 열린교육 시범학교 운영 이외에도 중학교

에서의 수업방법이나 평가를 기존의 체제와 달리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린교육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중학교 그림숙제-찍기시험 줄여/ 토론-발표수업...논술형 시험 확대키로” 라는 제목 아래 실린 다음의 기사(조선일보 1998.1.21. 31면)는 그것의 좋은 예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사가 주도하는 암기식 수업대신 토론-발표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가 그 과정을 관찰-면담해 성적을 매기는 과정평가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중간-기말고사는 선다형 시험을 줄이고 논술형 평가를 최대한 확대키로 했다...” .

이 기사에서는 열린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열린교육의 개념을 도입한 수업과정과 평가임을 알 수 있다. 즉 암기식 수업대신 토론-발표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거나 과정을 관찰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교사의 강의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가치를 발견해 나가도록 하는 교수방법이며, 이것은 열린교육에서 지향하는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방식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 근대교육이 도입된 이후 100년 간 계속된 일제식 수업의 관행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하여 중고등학교로 옮겨가며 학생중심의 개별화 수업으로 변화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교육개혁평가연구회의 보고(교육개혁평가연구회, 1997, 43)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변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학자 신옥순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열린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러한 관심이나 움직임의 방향이 과거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즉 교육행정가나 교육학자들이 행정적인 조치나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하여 현장의 교사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의 교사들이 스스로 교육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는 현저히 다르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변화의 내용과 속도에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기대되는 것이 크다고 한다(한국열린교육연구회 편저, 1994, 101).

이외에 열린교육에 대한 연구모임도 '한국 열린교육 연구회'를 비롯하여 '빼아제 열린교실 응용학회', '한국니일연구회'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회를 통하여 많은 저서나 번역서, 논문 등이 나오고 있다(성용구, 1994, 24-26).

3. 열린교육의 교수-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공간구성

3.1 학교도서관의 공간구조 원리

열린 교육을 위한 학교환경을 특징지을 때 보통 열린 공간, 열린 설계, 열린 영역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들이 뜻하는 핵심적 의미는 학교의 구조가 경직되거나 고정되게

지어지지 않고 융통성 있고 이동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지어진다는데 있다. 따라서 도서실을 비롯하여 과학실, 화장실, 조리실 등 지정된 장소만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그외의 지역은 모두 개방하여 융통성있게 활용되도록 한다(한국열린교육연구회 편저, 1994, 103-104).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정된 벽을 가능한 없애고 전 건물을 하나의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어 필요에 따라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나 책장, 이동식 칠판, 자바라 커튼 등을 활용하여 교실과 복도의 영역을 구획지어 사용한다. 동시에 공간의 개방성으로 인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영역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휴식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안락한 영역을 준비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한다. 열린 교육을 위한 이와 같은 공간 구성의 원리는 학교도서관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물론 학생들은 자신들의 교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활동하겠지만 열린교육의 개념은 한정된 공간에서의 교육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필요에 따라 이동수업을 할 경우⁵⁾도 있고 방과 후에 주제학습을 위한 준비활동으로서의 자료탐구, 혹은 소집단 활동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도서관도 열린 교육의 교수-학습에 적합하게 공간구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학교도서관이나 도서실이 공간구성이나 비품배치를 할 때 열린교육의 교수-학습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5) 영훈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책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학급단위로 독서코너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학년단위의 독서센터도 만들었다. 한편 중앙도서관에는 탐구와 조사 학습에 필요한 백과사전이나 참고자료, 잡지, 파일, 비디오자료 등과 시청각교육매체를 비치하고 일반도서관은 학년 독서센터에 배분하였다. 저학년은 주로 학급 독서코너와 학년 독서센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고학년은 주제학습과 같은 장기학습 또는 심화연구 등을 위해 중앙도서관에서 소집단으로 공동학습을 하게 한다.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도서실 또는 도서관은 학교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한다⁶⁾.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은 많은 경우 학교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열린교육은 특히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하는 교육형태인 만큼 수업 도중이라도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 와서 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거나 쉬는 시간 혹은 점심 시간 등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학교의 모든 곳에서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간구성을 할 때에는 우선 도서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으로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정보 이용교육과 이용자에 대한 열람 및 참고 봉사, 시청각자료 봉사, 수서, 편목, 기기수리, 장서점검 등의 기술적 봉사, 장단기 도서관 발전계획이나 예산관리, 업무평가,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도서위원 학생 및 학부모 자원 봉사자 선발과 교육 등을 포함한 도서관 행정관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활동이나 기능에는 서로 전혀 상관이 없어 공간적으로도 근접해 있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고 기능적으로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반드시 인접해야만 할 부서가 있을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꼭 인접해 있을 필요는 없지만 기능상에 관련성이 있는 부서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업무상의 상관관계

를 생각해서 공간구성을 해야 한다.

(3) 벽면의 색은 밝고 따뜻한 색으로 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꾸미도록 한다.

(4) 가구나 비품도 가능한한 철제를 피하고 목재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그룹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둥이나 이동이 가능한 책장, 칸막이, 이동식 칠판과 같은 것을 이용하여 공간 구획을 할 수 있게 한다.

(5) 학습자의 과제나 토픽에 따라 자료탐색이 쉽게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주제별 학습을 위한 소그룹 활동이 용이하게끔 주제별 공간 구성을 한다. 학교도서관의 경우 가능한 주제분야는 언어영역, 수 및 과학영역, 미술과 음악, 연극 등의 예술영역, 사회영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6) 각 영역은 영역별 주제 도서가 비치된 서가로 구분하고 각 공간에는 열람용 책상을 배치한다. 이때 책상은 6인용 등의 큰 규격을 지양하고 원탁이나 그룹 인원 수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분리가 가능한 테이블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직사각형의 큰 테이블보다는 삼각형이나 반원형의 테이블을 필요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7) 각 주제에 따른 영역별 공간구성을 할 때 유의할 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언어영역은 책읽기, 동화듣기, 글쓰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밝고 조용하고 아늑한 곳에 자리잡도록 하고 주제나 난이도 면에서 다양한 범위와 수준의 책들을

6) 허병두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시중심의 교실활동에 억눌려 지내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실과의 연계활동을 피하기 위하여 도서실의 위치를 반드시 학교중심부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회의를 표한다. 학생들에게 입시위주의 교실활동에서 벗어난 심리적 해방감을 도서관이 줄 수 있다면 학교중심부에서 벗어난 곳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그는 조심스럽게 피력하고 있다(허병두, 열린교육과 학교도서관.)

준비한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학년 아동을 위하여 여러 가지 동화 테이프도 준비하고 녹음기와 헤드폰 등도 비치한다.

② 수 및 과학영역은 동식물의 생태나 물질의 성질, 자연현상 등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동식물 등의 실물자료, 모형자료, 그림자료 등을 관련 주제의 도서와 함께 비치한다.

③ 예술영역은 녹음기와 녹음테이프, 텔레비존과 비디오 테이프 등의 시청각 기기를 비치하고 가능하다면 간이무대를 한켠에 마련해 두고 그 근처에 이 영역을 배치하도록 한다. 간혹 테이블 등을 치우고 활동할 수 있도록 바닥에 카페트를 깔다면 더욱 좋겠다.

④ 사회영역은 지구본이나 지도 등의 자료 등을 비치하고 신문이나 잡지 등의 자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정기간행물 코너와 근접시키는 것이 좋겠다.

⑤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탐색 코너는 모든 주제와 관련되어 이용될 수 있는 곳이다. 이용자들이 자료탐색을 할 시간대와 활동 공간을 생각하면 우선 자료탐색을 하고 각 주제별 영역으로 갈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각 주제별 영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미진한 자료를 탐색하기 위하여 이곳을 이용할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곳은 언제나 각 주제별 영역에서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교사용 자료코너는 교수방법에 관한 토의도 이루어질 수 있고 간단한 수업용 교재도 제작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정한다. 어린 학

생들이 아닌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코너이므로 햇빛이 잘 드는 남향 혹은 동선이 짧은 곳 등의 배려보다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공간구성을 하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코너이므로 자료와의 근접성이나 교사들끼리 교수방법을 토의하거나 교재 도구 제작, 연구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성보다 중점을 두도록 한다. 그런 측면에서 컴퓨터 자료탐색 코너나 정기간행물 코너 등과 가깝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락한 소파를 마련하거나 카펫을 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정기간행물실이나 코너를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면 이러한 공간을 정기간행물 자료코너와 근접시킴으로서 잡지나 신문을 편안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3. 2 학교도서관의 공간구조 사례

수원에 위치한 J초등학교⁷⁾는 아주 낮은 뒷산을 배경으로 3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건물들은 내부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인지 도서실은 물론 수영장을 비롯하여 각종 교육 및 체육 시설, 식당과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1) 도서관의 위치와 규모

이 학교의 도서관은 학교의 중심부에 있다. 4층으로 된 중앙건물의 1층 현관에서 왼

7) 이 학교의 도서관과 사서교사에 관련된 사항을 이미 소개한 글이 있다. 한윤옥(1997) "사서교사의 인간관계 전략" 도서관 52(4), pp.115-142를 참고하기 바란다.

쪽으로 돌아서면서 바로 나타나는데 소극장을 합하여 100평 정도 되는 규모로 60석 정도의 열람용 좌석이 있고 원룸 스타일의 조그만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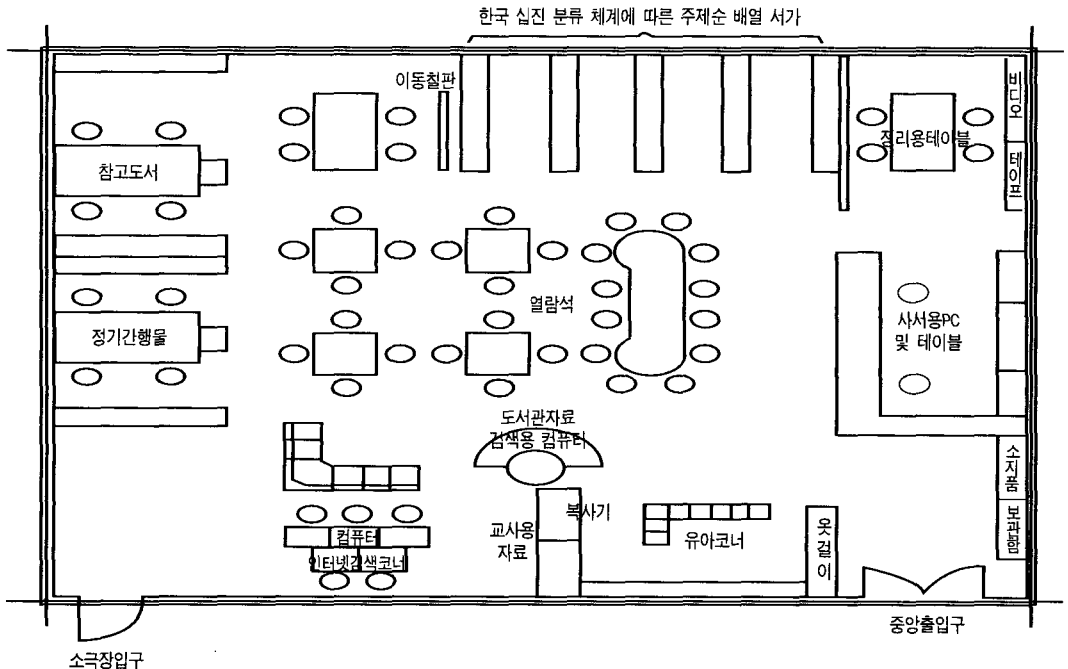
도서관 입구에는 소지품 보관함과 걸옷을 걸어둘 수 있는 옷걸이가 준비되어 있고 천장의 중앙은 유리로 되어 있어 자연광선을 이용한 밝은 실내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있다.

대략 아동도서가 6500권, 성인용 도서 1600권, 양서가 1000권 정도 준비되어 있고 약 800개의 교육용 비디오테이프가 있다. 컴퓨터는 현재 약 10대 있는데 이중에 3대는 사서교사가 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놓고 이용하고 있으며 열람자를 위한 컴퓨터는 7대로 이중 2대는 내부 자료검색용이

고 5대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것이다. 도서관 북쪽으로 소극장이 붙어있어 언제든지 비디오테이프 등을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이 간단한 연극 등을 공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사서교사에게 사용할 시간 등을 이야기하도록 되어있으며 도서관 한쪽에는 소극장 사용 시간표가 예쁘게 붙어있다. 서가는 철제이지만 하얀 색의 페인트 칠이 되어 있어 밝은 색종이와 그림을 이용한 서가의 주제 안내판을 밝고 예쁘게 두드러져 보이게 한다.

2) 도서관의 실내 공간 구성

아래 <그림 1>의 배치도와 사진을 참고로 하여 실내 공간의 구성을 살펴보면서 몇가지 장단점을 짚어보도록 한다.



<그림 1> J 초등학교 도서관 배치도

출입구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중앙에 열람용 책상이 배열되어 있고 사방의 벽면을 따라 서가가 배열되어 있으며 열람실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위치에 대출 카운터를 배치하고 그것에 의하여 열람석과 벽사이에 생긴 공간을 사서교사의 사무실 및 자료 정리실로 이용하고 있다. 사서교사의 자리에서 열람실을 전부 조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점과 비디오 테이프를 이 공간에 비치해 놓음으로서 사서교사가 이것을 대출해 줄 때 동선을 줄일 수 있도록 처리한 점이 좋다고 본다.

다음, 중앙 출입구의 왼쪽부터 시계바늘 방향으로 각 코너들을 살펴보면 우선 이 도서실에서는 유일하게 카펫이 깔려 있고 벽면의 나무그림이 시원한 느낌을 주는 공간이 나타난다(사진 1 참고). 이곳에 비치되어 있는 블록형의 낮트막한 정육면체형 비품들은 어린이들이 깔고 앉기도 하고 책상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며, 블록쌓기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용도 변경을 시킬 수 있다. 카펫과 시원한 나무그림, 장난감같은 블록형의 소품들이 주는 안락함으로 어린이들이 앉거나 혹은 누워서 편안하게 책도 읽고 놀이하듯 도서실의 시설과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공간이 구성된 이곳은 이야기 들려주기(Storytelling)나 열린교육에서 많이 행하는 러그미팅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보인다. 한편 이곳의 앞쪽 한 구석에는 복사기가 놓여 있고 그 옆쪽에는 기둥을 둘러싸고 짜넣은 책상에 자료검색용 컴퓨터가 한 대 있어서 이용자들의 자료이용을 돕고 있다. 공간 활용을 잘한 경우이지만 기능과 공간의 관련성 측면(3. 1 2번 참고)에서 보면 이 검색용



〈사진 1〉

컴퓨터는 검색한 자료를 바로 가까운 주제별 서가에서 찾을 수 있도록 주제 영역별 서가 가까운 곳에 비치하는 것이 더 나았으리라고 본다. 이 도서실의 경우 출입문에서 대각선으로 바라다 보이는 구석에 비치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둥을 이용한 공간에는 어린이용 동화테이프와 헤드폰 등을 비치하면 저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 들려주기 활동과 어우러질 수 있어 더 효율적인 공간구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교사용 자료코너로서 이곳에는 교육개발원이나 교육연구원 등에서 나온 교사용 지침서들과 미국의 McMillan사에서 나온 각종 자료 및 교구들이 있다. 이 옆에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5대가 비치된 컴퓨터 자료탐색 코너(그림 1 참고)가 있고 소극장과 연결되는 출입구가 가까이에 있다. 조명이 있지만 비교적 어둡고 중앙의 열람실로부터 독립된 공간처럼 보인다.

다음은 정기간행물 코너(사진 2 참고)이다. 열린 교수-학습활동에서 NIE활동⁸⁾이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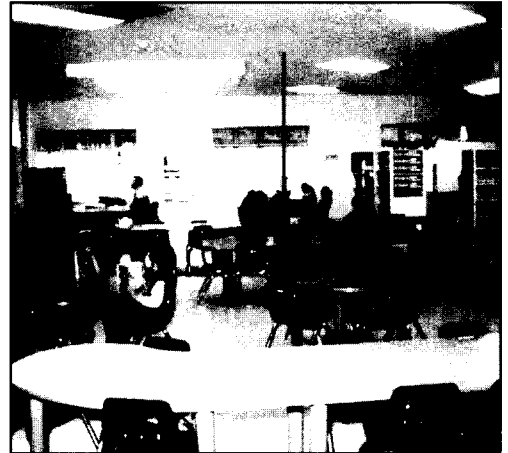
이 동원되기 때문에 정기간행물 코너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중요성이 커진 곳인데 원룸스타일의 이 학교 도서관에서는 서가를 이용하여 생긴 공간에 잡지와와 신문을 비치하고 책상을 배치함으로써 학생과 교사들의 잡지열람이나 주제학습 활동⁸⁾을 도와주고 있다. 또 가까운 곳에 소파를 배치하여 신문이나 잡지를 안락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뒤적여 볼 수 있게 함으로서 브라우징 코너(Browsing Corner)로서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공간 연출을 하고 있다(사진 2 및 그림 1 참고). 도서관에서의 정기간행물실과 브라우징

코너는 기능상 근접해 있어야 할 공간인데 그러한 원칙이 잘 지켜진 경우이다. 필자가 사진을 찍기 위하여 방문한 날도 정기간행물실에는 교사들 3-4명이 모여앉아 자료를 놓고 교재연구를 위한 토의를 하고 있었으며 소파에서 2-3명의 교사들이 담소를 즐기면서 간단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옆의 코너는 참고도서 코너로 서가와 서가 사이에 생긴 공간에 경사형 책상을 비치해 놓음으로서 이용자들이 필요한 사항을 자리에 잠시 앉아 바로 찾아 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사진 3 화살표 부분 참고). 좋은 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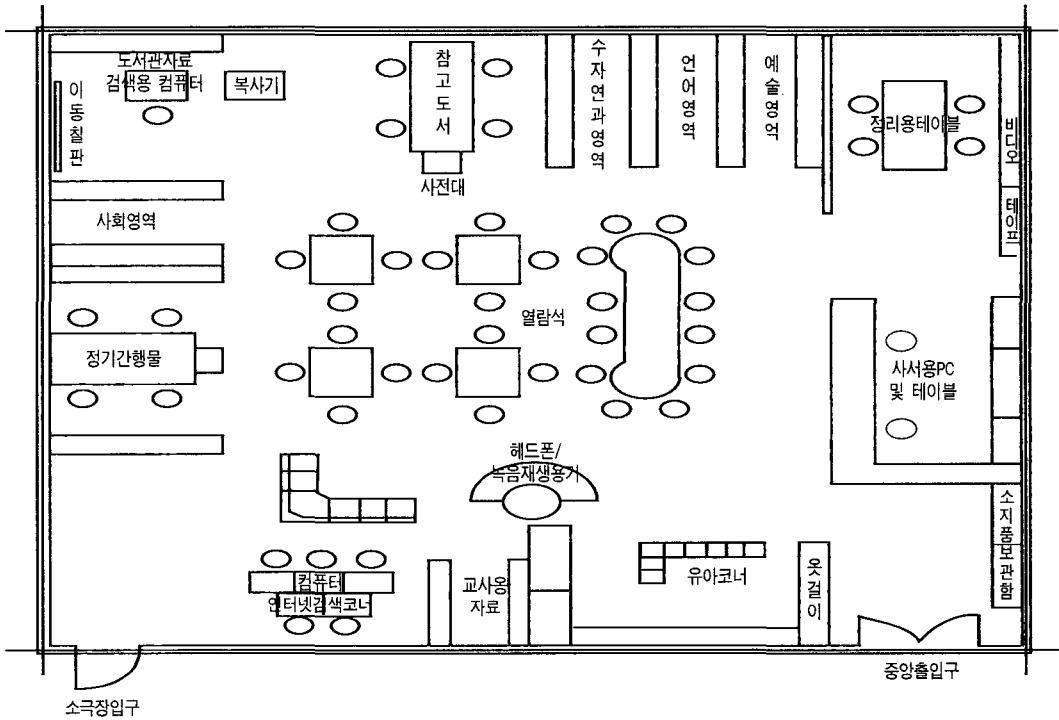


<사진 2>



<사진 3>

- 8) Newspapers in Education을 뜻하는 것으로 신문사와 교사가 협력하여 신문을 학교수업의 자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교육적 프로그램이다. 많은 나라에서 신문의 사회교육적인 기능을 교사 개인의 재량에 따라 학교 교육에서 활용해 왔지만 이것을 체계적인 교육제도의 하나로 활성화 시키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 영상 매체가 발달하면서 신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신문사가 주체가 되어 교사와 신문사가 협력하는 체계적인 제도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김두임(1998) "신문활용을 통한 독서교육" '98 사서직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독서지도과정 교육교재, p.87>.
- 9) 교과활동을 재구성한 주제학습(토픽활동, 토픽학습)은 열린교육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기존의 학습형태를 깬 가장 특징적인 교육방법으로 꼽히는 것으로서 학생들이 선택한 학습주제 중에서 흥미나 관심이 있는 분야의 소주제를 선택하여 탐구해 나가는 것이다. 이때 학습주제나 방향은 학생들이 결정하기도 하고 교사가 준비하기도 한다. 다인수 학습에서 많은 양의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나 사회나 자연교과를 주제학습으로 재구성하여 실행해 보는 것은 비교적 경험이 적은 교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한국열린교육협의회(1997), 열린교육 열린학습 교사용 지도서, 서울: 교보문고, 10-11, 참고>.



〈그림 2〉 변경시킨 J초등학교 도서관 배치도

상이긴 하나 한편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무거운 사전을 들고 의자에 앉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 카펫을 깔아 놓음으로서 그냥 주저앉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별 자료들은 주로 출입구에서 정면으로 바라다 보이는 쪽의 벽면을 따라 측면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십진분류에 따라 자료는 배열되어 있다. 이것을 십진분류순에 따라 배열하기 보다 언어영역, 수 및 자연과학 영역, 사회과학 영역, 예술영역의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같은 계통의 자료들을 모아서 배열한다면 어린이들의 자료탐색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과학 영역의 자료

는 십진분류에서 역사(900) 및 종교(200), 사회과학(300)에 배정된 자료들과 지도, 지구본, 각종 향토자료 등을 인접되게 배열하고 가능한한 정기간행물 코너와 가깝게 위치를 정한다. 이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현재 정기간행물 코너 옆에 참고도서 코너가 있는데 이 자료들은 각종 주제의 도서와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므로 정기간행물실과 바로 이웃해 있기 보다는 다른 주제영역 코너들과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재 참고도서 코너의 위치에 사회과학 영역의 서가를 비치하고 참고도서 코너는 다른 주제 영역별 서가들과 가깝도록 위치를 옮기는 것이 기능상 효과가 있으리라

고 본다. 가능한 본래의 위치를 바꾸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도서실의 주제별 자료배치나 공간구성을 바꾸어 본다면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교육환경이란 교육 목표달성을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특히 물리적 환경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열린 교육에 있어서의 교실이나 도서실의 환경구성은 어느 하나의 모델이 있을 수 없고 자유롭게 경우에 따라 적용해야 하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구성 그 자체보다도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환경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가와 열린 교육의 철학에 뿌리를 둔 정신적 자세라고 본다.

4. 열린교육의 교수-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봉사

4.1 열린교육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

열린교육은 학생의 개성과 흥미가 반영되는 수업이 되어야 하므로 교과과정의 모형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열린교육을 하지 않던 학교나 학교도서관에서 처음 열린교육을 실시하려면 막연하기 그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열린교육을 처음 시도하려는 곳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열린교육에서의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유형과 교수-학습방법을 살펴보고 그에 맞추어 학교도서관의 활용과정으로서 협동 교수프로그램의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

열린교육의 교육과정을 조연순(한국열린교육연구회 편저, 1994, 71-79)은 비구조적 교육과정과 준구조적 교육과정, 구조적 교육과정으로 나눈다. 비구조적 교육과정은 열린교육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이 교육내용이나 방법, 제도면에서 학생과 교사에게 자율권을 최대한 허용하는 형태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 문화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한 시행하기 어렵다고 한다. 준구조적 교육과정은 미국에서 열린교육을 처음 시도하면서 영국의 비형식적 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형태를 취한 교육과정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비구조적인 교육과정에서처럼 모든 선택이 학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기초기능 이외의 학과목 특히 사회와 과학 등의 영역에서는 아동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구조적 교육과정은 1970년대 일본에서, 그리고 1980년대 한국의 사립국민학교에서 열린교육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문화에 맞게 적용한 것이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목적은 정해진 교육과정의 일정한 범위내에서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아동의 개성을 존중하는 개별화된 학습에 있다. 학습내용으로서는 기초기능이 중시되며 필수적으로 완성해야 할 학습과제가 부과된다. 아동의 흥미에 따른 선택활동은 추가로 삽입된다. 일과시간표는 일반학교보다는 큰 단위로 묶여있지만 교과별로 나뉘어 있고 개별학습과 소그룹활동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다. 학급구성도 대

개 같은 연령으로 이루어지며 담임교사의 안내하에 거의 모든 학습활동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의 내용 및 활동을 계획, 감독, 평가까지 총괄하는 진행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결국 구조적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인적인 성장보다는 높은 학업성취에 보다 관심이 많은 사회적 분위기와 통일

된 교육과정, 단일 교과서 체제하에서 일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열린 교육에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상의 세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이지를 먼저 결정해야 하고, 다음에 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에 중

<표 1> 학습지도 계획안

단원명	주제명	제재명	핵심지도내용
1. 우리 도의 모습과 내력	(1) 우리 도를 알 수 있는 자료	사회과 부도 지도 공부	경기도를 알 수 있는 자료의 종류와 내용 지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지도에 쓰이는 기호
	(2) 지도로 본 경기도	우리나라의 중심지 황해도 흐르는 강 지도여행	경기도의 위치, 교통, 행정구역 경기도의 주요시설과 휴양지 경기도의 강과 평야, 자연의 모습, 기후
	(3) 오랜 역사의 중심지	행주산성 양주 별산대 놀이 경기도 연표 역사지도	경기도의 주요시설과 휴양지, 휴전선 부근의 모습 경기도의 유물과 유적, 인물 경기도의 민속놀이와 민요, 전설, 문화재 연표 이용하기, 그림연표 만들기
2. 우리 도 사람들의 생활	(1) 여러가지 산업	질 좋은 경기미 반월공업단지 국민관광단지 가평жат과 안성유기	역사지도의 이용 경기도의 농업, 어업 경기도의 공업 경기도의 관광지와 관광업의 발달
	(2) 물자의 이동과 생활 향상	물자의 이동 버섯박사	경기도의 특산물 물품의 이동까닭과 과정, 이동물품의 종류 소득향상을 위한 노력
	(3) 인구와 교통	신도시 신갈 인터체인지 화상회의	주요 도시, 인구의 변화 주요 교통망, 주요 교통로 통신의 발달과 일상생활에 주는 도움, 통신 기관
3. 우리 도의 밝은 내일	(1) 도민의 바람	상수원 보호 도민의 소리	도민들의 어려운 문제
	(2) 함께 하는 노력	도 의회와 도청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이웃을 사랑한 아저씨	도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와 해결과정 도 의회와 도청이 하는 일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 도의 여러 기관과 하는 일
	(3) 살기 좋은 앞날	환경 가꾸기 시화지구 개발과 평택 항 건설 미래 모습 가꾸기	재해예방 살기좋은 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할 일 경기도의 발전계획 경기도의 미래 모습을 생각하여 꾸며 보기

점을 들것인가에 대한 기본 철학을 세워야 한다. 가령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어떤 구체화된 지식보다는 많은 정보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의 구성방향도 사실과 개념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1-2학년의 교육과정은 '의사소통 능력'에 중점을 두어 구성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의사 결정하기'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상의 목표에 맞춘 열린 교수-학습방법은 협력학습(지그소우 협력학습 또는 jigsaw라고도 함), 자리활동(코너학습, 코너활동이라고도 한다),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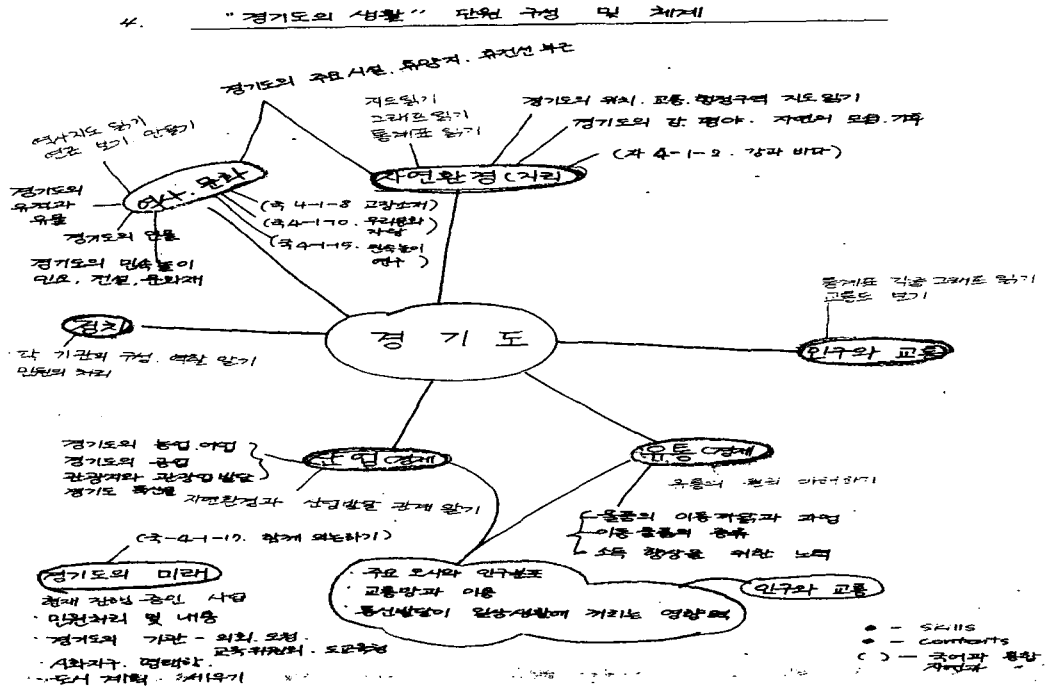
제학습, 통합학습, 팀티칭(team teaching) 등이다(한국열린교육협의회, 1997. 9-13).

4. 2 열린교육의 교수 학습방법 사례

앞의 J초등학교에 근무하는 S교사에 의해 1998년 3월에 실시된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수업을 예로 들어보도록 한다.

1) 교수-학습 지도계획안

- (1) 학습주제 : 경기도
- (2) 학습목표 : 생각
- (3) 학습내용 :
- (4) '경기도의 생활' 단원구성 및 체계 (S교사의 학습지도 계획안에서 나온 것 그대로이다.)



<그림 3> '경기도의 생활' 단원 구성 및 체계도

(5) 통합방법

A. 주제 중심의 통합

* 4학년 1학기 사회과 내용이 경기도의 이모저모인 것을 착안하여 사회과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단원의 기술과 관련된 타교과의 내용을 사회과와 통합하여 학습함

B. 프로젝트 학습

* 협동학습의 jigsaw 구조를 이용하여 8개의 모둠별로 주어진 학습내용을 조사,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

* 보고서의 작성요령은 교사가 재구성한 사회과 학습내용의 체계표에 따라 조사영역을 각 모둠의 구성원들이 분담한 후 동일한 조사영역을 맡은 어린이들끼리 모여 자료조사를 한다. 자료조사가 끝나면 다시 각자의 모둠으로 돌아가 조사한 자료들을 공유하여 모둠원들에게 설명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이하 생략

C. 프로젝트 학습단계

1단계 : *사회과 학습기술 지도

→ 지도읽기, 연표 보기, 자료조사방법.... 지도

* 직접교수법, 교사 중심 수업

* 준비물 : 인터넷의 경기도 사이트 주소와 도서관 자료목록, 자료조사방법, 구입장소, 전학문 작성법 등.....

2단계 : *사회과 내용체계 파악 및 자료조사 분담

→ 조사내용의 개요 설명, 모둠별로 역할이야기

* 협동학습 - jigsaw 예비단계

* 준비물 : 역할분담표

3단계 : *자료조사 및 정리

→ 각 역할별(은전 연구소끼리, 문학동아리 끼리....)로 모여 자료조사

→ 협동학습 -jigsaw

* 준비물 : 도서관 방문, 컴퓨터로 자료검색

4단계 : 자료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모둠별로 모여 각자가 부서에서 찾아 온 자료 설명, 정리한 후 보고서 작성

→ 협동학습-Jigsaw

* 준비물 : 정리화일, 색연필, 종이

5단계 :평가단계

→ 상호평가, 모둠별 평가, 개인별 평가

→ Best researcher 선출

* 준비물 : 평가체계표

D. 유의 사항

...이하 생략

2)수업과정 및 결과물

(1)수업과정

위의 교수-학습지도안에서 본 것과 같은 전략과 방법에 의하여 수업은 진행된다.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은 모둠별로 정해진 주제에 따라 자료 조사 및 탐구활동을 하는데 S교사는 타과목과 연계가 가능한 것은 통합학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각 모둠별로 조사한 것들 중에서 한 모둠이 한 것의 일부를 예로 들어본다.

모듬이름 : 아지랑이

모듬원 : 김주호, 김자연, 이승훈, 박상은, 홍유진

내용 및 자료담당	통합과목	이용한 자료
*경기도의 모습을 나타낸 여러 가지 종류의 지도 (우리나라 전체에서의 경기도의 모습) 홍유진 산업도(경기도의 생활 82쪽) 김주호 지형도 김주호 행정구역도 이자연 교통도 이승훈		
* 경기도의 기후알아보기 김자연		경(27-30쪽)

내용 및 자료담당	통합과목	이용한 자료
*경기도에 있는 산 -산의 위치, 이름, 산의 특징, 자연환경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지의 여부 마석령산맥, 광주산맥, 차령산맥 이승훈 북한산 박상은 관악산 홍유진 용문산 김주호 남한산 이승훈 화악산 김자연 국망봉 김자연 명지산 홍유진 광덕산 박상은	자연과 수학과 만의 자리 이상의 덧 셈, 뺄셈. 높이 조사, 세계의 명 산과 경기도의 산높 이 조사	

.....이하 생략

(2)결과물

<그림 4>에서 위의 모둠에서 발표하고 제출한 결과물들의 일부를 본다.

학생들의 과제보고서를 보면 학생들이 아직 보고서 작성의 기초지식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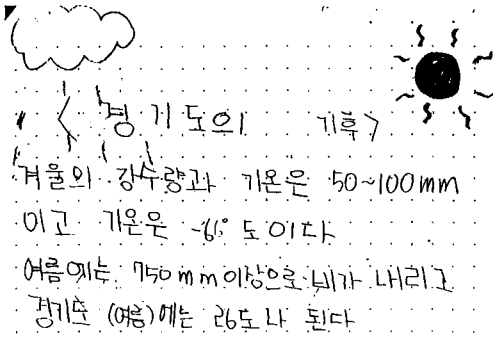
4. 3 열린교육의 교수-학습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협동교수프로그램

현대에 있어서 학교도서관의 중요한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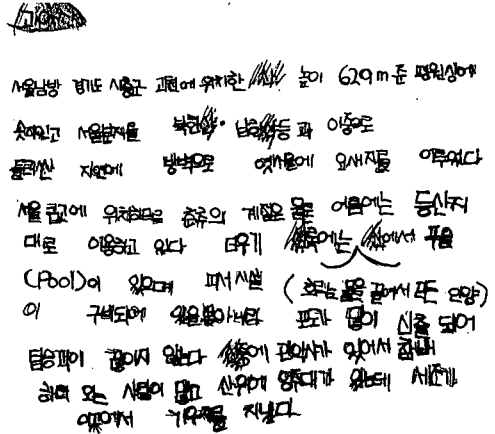
을 든다면 정보 활용능력의 신장, 교사의 교수활동 지원, 독서활동 증진이라고 할 수 있다(Turner, P. M. 1993, 5-8). 특히 학교 구성원들의 정보활용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사서교사는 정보화에 필요한 기술적 환경을 갖추어 제공하고, 각종 정보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며, 정보 분석의 방법, 자료를 다루는 법 등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일반 교과목들과 함께 개설된 정보활용 교과목¹⁰⁾(함명식, 1997, 145) 시간에 가르칠 수도 있고 협동교수프로그램

10) 요즘 일부 고등학교에서 개설한 교과목 '정보와 매체' 시간에도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A. 결과물1(경기도의 기후)



B. 결과물 2(관악산)



〈그림 4〉 학생들의 과제 보고서

(Cooperative Program Planning and Teaching)과 같은 도서관의 교수활동 지원 프로그램이나 참고봉사 등과 같은 비형식적 교수활동을 통해 가르칠 수도 있다.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경우 사서교사가 있는 곳에서는 협동교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열린교육은 학생들 스스로 탐구하도록 하는 학습인 만큼 많은 자료가 필요한 교육 형태이고 협동교수프로그램은 도서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탐구학습활동의 개념에 보다 더 적극적인 사서교사의 교육활동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전략적 개념(한윤옥, 1995, 259)인 만큼 양자가 추구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의 교수-학습과정의 사례에서 살펴 본 S교사의 사회과 수업에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J초등학교 도서관의 경우를 사례로 살펴보고 다음에 어떻게 협동교수프로그램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1) 열린수업에 대한 도서관의 참여형식 사례

S교사의 학습지도안을 보면 교수방식은 주제중심의 통합방법과 프로젝트 학습이 쓰이고 있다. 또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지도나 연표 보기 등의 학습내용과 관련된 기술지도와 함께 자료 조사 방법이나 나온다. 이용되는 자료로는 백과사전과 같은 인쇄물 형태의 참고도서부터 전자정보 형태인 인터넷 사이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위하여 사서교사 K는 도서관에 비치된 관련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교사인 S교사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그 목록의 제목은 “J 초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경기도 관련 자료목록”이다. 이것은 다시 ‘백과사전류’, ‘경기도 관련물’, ‘경기도의 자연과 관련된 정보’, ‘경기도에 관련된 역사’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청구번호와 함께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등 관련도서들

의 서지적 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또한 “컴퓨터로 검색할 수 있는 경기도 관련자료 목록”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수원 시립교향악단 및 경기도 문예회관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경기도 소재 대학, 경기도 광릉, 경기도 축령산 등의 홈페이지 주소들이 정리되어 있다. 이 목록들은 모두 S교사의 학습지도안에 첨부되어 있는데 그중의 일부만 <표 2, 3>을 통해 보도록 한다.

이러한 목록과 관련된 봉사상황에 대하여 K사서교사에게 물었다.

“...본교 도서관에서는 그냥 선생님들한테서 자료 요청을 받으면 그걸 제공하는 지원 차원에서의 봉사밖에는 못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들 자료두 마찬가지로요. 학습지도안 보구 그냥 이용한 자료나 기본 자료에 나타난 자료의 목록만 작성해 준거예요. 협동교수 프로그램인가 그거는 사실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

드라구요. 그냥 도서관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일만 해도 너무 바빠요. 책 구입도 많이 해야 하구... 그것두 사실 선정하는게 쉽지 않드라구요. 너무 많이 한꺼번에 할 때는 출판사 목록만 보구 할 때두 있는데 그 외에는 내용두 살펴보구 정리두 해야하구... 어머니 자원 봉사자들이 그래요. 도서관 일이 밖에서 볼 때는 우아한데 와서 해보니까 전혀 우아한거 하구는 거리가 멀구 힘들다구요. 우리는 아이들이 2학년 3학년때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사전 이용법, 도서관 자료 검색법, 자료의 배가 위치 정도를 가르쳐 주구 그외에 러그미팅 하는 자리에서 인형극을 자원 봉사하는 어머니들이 해 주는 때가 있어요. 유치원에서는 도서관에 연락을 해 오면 가령 예를 들어서 계절에 관한 것을 부탁하면 봄이면 봄에 관련된 책들을 뽑아서 보내 주죠. 가끔 도서관에서 책을 선정해서 보내 주기두 하구요. 그러니까 먼저 해 주지는 못하구 저

<표 2> 경기도의 자연과 관련된 정보

청구번호	책이름	글쓴이	출판사	출판년
408-신66ㅎ	한국의 자연탐험	신유항	웅진	1994
R480.3-김883ㅇ	어린이 식물도감	김태정	예림당	1994
080-두55즈	생활의 발견	두손	두손미디어	1993
407-이38ㄴ	배낭속 관찰일기	이미숙	웅진	1995
V374.4-사4-2	사회(산지와 우리생활)	EBS	EBS	1997
408-십14즈	자연그림책	심경석	캠프	1994
408-이94ㄴ	빛깔있는 책들(한강)	이형석	대원사	1992
080--두55즈	자연의 발견	두손	두손	1993
980.2-서640	우리나라 좋은나라/강	최양수	글수래	1997
980-표54ㅅ	신나는 팔도학습여행	표성흠	웅진	1994
080-백540	어린이 마을	백석기	웅진	1994
98/ㅇ/-채97ㄴ	분단 50년 북한을 가다	채희운	한국문원	1995

〈표 3〉 컴퓨터로 검색할 수 있는 경기도 관련 자료 목록

제 목	주 소
수원시향/ 경기도 문예회관 홈페이지	http://www.damool.com
마당발-홈페이지/교육/대학교/경기도	http://www.anysearch.com/Education/Universities/Kyoungkido
서울경기도 김치특색	http://www.낫.채.kr/museum/kimchi/Kyoungl.htm
경기도 광릉	http://bric.postech.ac.kr/species/bird/b6/html
경기도 함왕봉	http://edunet.nmc.nm.kr/aviso/yt/yt1036033.htm
경기도 축령산	http://edunet.nmc.nm.kr/aviso/yt/yt036034.htm
경기도	http://www.papi.co.kr/trip/tripdata/Kyeongki/Kyeongki/htm

쪽에서 원하면 찾아주는 정도라구 봐요. 아까 두 이야기 했지만 하구 싶어도 아직은 도서관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만 해두 혼자로는 벅차요 ”¹¹⁾

K교사의 말을 빌어보면 J초등학교 사회과의 열린수업을 위한 도서관의 참여는 교사의 학습지도안에 따라 자료를 찾아 목록을 작성하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를 해주는 형태로서 학생들의 학습활동 단계에서 자료를 지원해 주는 전통적인 형태와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사서교사 혼자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일에만 매달려도 부족하다는 현실이 이해되지만 한편 변화하는 교육체제 속에서 도서관과 사서교사가 도태되지 않으려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그 방안중의 하나가 현대의 사서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수-학습의 상담자로서의 역할(Turner, P. M., 1993, 11)이다. 그러면 어떻게 교수-학습 상담자로서 상대편 교사의 교수-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동교수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을까? 위의 J초등

학교의 4학년 사회과 수업을 예로 들어 모형을 짜 보도록 한다.

2) 사례에 나타난 경우의 협동교수프로그램 모형

위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협동교수프로그램의 절차와 과정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한윤옥, 1995, 262-267).

우선 대상자가 누구이며 협동교수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 교과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과목의 목적과 학생들의 정보활용에 관한 지식이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담당교사의 교수-학습계획을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대상자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의 학생들이고 2-3학년때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컴퓨터로 학교 도서관의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과 도서관 내에서의 각종 자료의 위치, 사전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S교사의 교수-학습지도안을 통하여 자연 및 산수 과목과의 통합학습을 피하고 있고 모듈별 활동에

11)1998년 5월1일 오후 1시경 경기대학 도서관에서 면담.

의한 보고서 작성, 인쇄매체 및 인터넷의 이용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과의 프로젝트 학습과 어울리는 협동교수프로그램을 계획하도록 하는데 그 절차는 경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표 4>와 같은 모형적 절차를 생각할 수 있다.

모형적 절차에서 보면 목표설정에서부터 사서교사는 참여하게 된다. 즉 학생들의 정보활용 기술을 파악하고 담당교사와 의논하여 학생들의 능력과 교과목의 성격에 맞는 미디어 및 정보이용기술을 정한다. 그리고 이것을 사서교사가 자연스럽게 도서관에서의 자료탐구 과정에서 혹은 정보관련 교수과정(도서관에서의 수업 등)을 통하여 가르칠 것을 정하고 상대 교과목의 교사와 적절한 시기 및 시간분량을 정하는 것이 다르다. 결과적으로 J초등학교의 사서교사가 제시하여 준 목록과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하여도 상대 교과목 담당교사가 제시한 학습지도안을 보고 목록을 작성하여 주는 것과 학과 단원 시작단계에서부터 의논하고 찾아 주는 것과는 다르다. 특히 사서교사들의 교수활동에의 적극적 참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과정과 절차는 일반교사들의 도서관과 사서교사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사서교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5. 결론

교육개혁위원회는 21세기를 이끌어 갈 창

의적이고 사고력이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열린교육 체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재 적지 않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이들이 언제라도 자신의 관심에 따라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의문을 풀기위해 스스로 추구하고 지식을 탐구하도록 하는 열린교육은 풍부한 교수-학습자료를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는 교육방법이지만 아직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학교도서관과 열린교육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된 저변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현장 교사들이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교사들은 열린교육과 같은 새로운 교육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학교도서관에 대한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다른 하나는 도서관측 요인으로 사회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그것에 적합한 봉사체제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수원의 J초등학교의 도서관을 사례로 하여 열린교육의 교수-학습활동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도서관의 봉사체제로서 공간구성을 살펴보고 교수-학습과정과 연계된 교수 프로그램으로서의 협동교수프로그램을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 밝혀진 것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안은 아래와 같다.

1. 열린교육이 실시되는 교실의 구조는 기존의 것과 다르다. 벽이 없고 일률적인 책상

〈표 4〉 협동교수프로그램을 위한 도서관의 교수-학습과정 절차

도서관의 교수-학습과정 단계		도서관의 교수-학습과정 내용
목표설정	학생들의 정보활용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후 교과목 담당교사와 의논하여 학생들이 사회과 학습을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이용기술의 종류를 정하도록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과제해결을 위하여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② 사회과 과제해결에 필요한 참고도서류를 이해한다. ③ 전자정보의 종류 및 특성, 탐색법을 이해한다. ④ 보고서 작성의 기초지식을 알게 한다.
내용결정및 조직	학습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자료선정을 한다. 이것을 위하여 상대교과의 교수-학습계획안을 본다든지 담당교사와 의논하여 상대 교과목의 성격에 맞는 미디어와 가용정보자료 등을 선택하고 활용방법을 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과 교수-학습에 필요한 참고자료의 종류와 형태를 선정하고 활용방법을 정한다. ②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고 목록을 작성한다(예. 경기도의 자연과 관련된 정보 참고) ③ 사회과 교수-학습에 필요한 전자정보의 형태와 종류를 결정하고 활용방법을 정한다 ④ 주제에 적합한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하여 사이트 주소록을 작성한다(예. 컴퓨터로 검색할 수 있는 경기도 관련 자료목록 참고) ⑤ 보고서의 내용조직법과 참고문헌 주기법을 간략하게 이해시키도록 한다.
교수방법 및 전략의 설정	전단계에서 선정한 정보자료 및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지 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등을 이 단계에서 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과 교사와 의논하여 두시간을 사서교사가 도서관에서 정보활용 기술에 관련된 것을 지도하도록 하고, 도서관 수업시기를 대략 정한다. ② 참고도서 소개와 보고서 작성법은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도록 한다. ③ 전자정보에 관한 수업은 컴퓨터와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단계 및 정보의 탐색단계를 설명한 후 실제로 찾아보는 기회를 준다.
교수-학습 활동의 결정	학생들이 교실과 도서관에서 자신들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의를 하도록 한다든가 자료를 탐색하도록 한다. 도서관에서의 활동시 사서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상황을 지켜보면서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의 교수전략에서 설정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수업을 한다. ② 과제해결을 위하여 학생들이 각종 자료를 직접 찾아볼 수 있게 하고 자료의 유용성을 판단하게 한다.
평가	학습활동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활동하는 것과 보고서 등을 보고 평가한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다음 단계의 도서관 수업에서 참고한다.	학생들의 정보탐색 능력이 신장되었는지, 본 주제에 적합한 정보 탐색기법이 적용되었는지를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 및 도서관에서의 활동과정을 살펴 보면서 평가한다.

의 배열이 없다.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도 열린교육과 연계된 교수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한 공간 구성의 원리를 개발해야 하고(3.1. 참조), 이에 따른 서가배열이나 비품배치에 의한 공간을 연출해야 한다.

2. 열린교육은 학생들 스스로 탐구하여 깨닫게 하는 교육체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하는 교육형태이고, 협동교수프로그램은 도서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탐구학습활동의 개념에 보다 더 적극적인 사서교사의 교육활동에의 참여가 강조되는 전략적 봉사프로그램이므로 양자의 교육형태는 같다. 그러므로 협동교수프로그램은 열린교육과의 연계 교수프로그램으로서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봉사 프로그램¹²⁾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수과정이나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4. 3 참조).

3. 현장의 사서교사는 협동교수프로그램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학교도서관의 여건부족을 이유로 이 프로그램의 실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즉

협동교수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가치는 인정하지만 도서관의 일상적인 업무 처리만 해도 부족한 인력으로 각 교과목 담당교사들과 교수-학습 계획의 목표부터 협의해야 하는 이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4.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새로운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도서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도서관의 변화된 봉사에 대하여 적극 홍보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어떤 변화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이용자나 잠정적인 이용가능자가 도서관을 찾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열린교육의 특성에 맞게 학교도서관의 구조를 바꾸고, 협동교수프로그램과 같은 열린교육과 연계된 학교도서관 활용교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일반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새로운 교육체제 속에 고민하는 일반교사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봉사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12) 서울의 송곡여자고등학교는 1998년도에 협동교수프로그램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사회, 가정, 문학 과목에 대한 협동교수프로그램을 동년 2학기에 한달 간격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며 계성초등학교의 박금희 사서교사는 1998년 2월에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논문 <학교도서관 매체센터의 협동교수프로그램 모형개발 연구>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참 고 문 헌

1. 교육개혁평가연구회, 1997, 21세기의 새 지평 교육개혁, 서울, 교육부 교육개혁평가연구회.
2. 김두업, 1998, 신문활용을 통한 독서교육, '98 사서직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독서지도과정 교육교재, 85-114.
3. 박성익, 1994, 열린교육의 교육과정 구성원리와 실천방안 모색, 초등교육연구논총, 제6집, 9-22.
4. 성용구, 1994, 우리나라 국민학교에 열린교육의 적용방안 탐색, 초등교육연구논총, 제6집, 23-42.
5. 조용기, 1994, 열린교육의 정신, 초등교육연구논총, 제6집, 5-8.
6. 한국열린교육연구회, 한국초등교육학회학회 편저, 1994, 열린교육의 이해, 서울, 양서원.
7. 한국열린교육협의회, 1997, 교보 열린교육 열린학습 교사용지도서, 서울, 교보문고.
8. 한윤옥, 1997, 사서교사의 인간관계 전략, 도서관, 제52권 제4호, 115-142.
9. 한윤옥, 1995, 학교도서관의 협동교수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9집, 257-279.
10. 함명식, 1997, 정보와 매체 교과를 통해서 보는 사서교사 실기교사(사서)의 교육적인 역할-적극적 참고봉사로서의 정보와 매체 교육, 도서관, 제52권 제4호, 143-181.
11. 허병두, 1993, 열린교육과 학교도서관 서울, 고려원미디어.
12. Turner, Philip M., 1993, Helping teachers teach ; a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s role, Englewood, Libraries Unlimited.